

# 대학생의 화폐소득과 의복구매행동\*: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The Undergraduates' Money Income and the Clothes Purchasing Behavior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신효련\*\*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과학연구소

부교수 홍은실\*\*\*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Shin, Hyo-Ryeon*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Hong, Eun-Sil*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money resource on the resource use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aim of the study was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 income and clothes-purchasing behavior. A total of 415 undergraduates residing in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were interview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SPSS 12.0 software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Cronbach's  $\alpha$ ,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analysis and chi-square analysis were all conducted to acquire the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undergraduate

\* 이 논문은 2009년도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신효련 (hyoryeon@hanmail.net)

\*\*\* 교신저자: 홍은실 (esmail@korea.com)

income average was relatively high. Second, the motive for clothing purchases by undergraduates was to buy clothes similar to those which they already had. The undergraduates acquired their purchasing information from past experiences of buying clothes and considered design, quality and color when choosing their clothing. They purchased their clothes at retail stores and on average bought clothes about once a month. Although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clothes was over 100,000 won, in general, the undergraduates spent between 50,000 and 100,000 won a month. They mainly paid cash when they purchased their clothes. Third, by analyzing the income, clothes-purchasing behavior, and clothes purchasing frequency of undergraduates,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average monthly clothes expenditure and payment methods were det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undergraduate money resource usage behaviors and can be utilized as an educational resource at home and within educational institutions.

**Key Words :** 화폐소득(money income), 용돈(allowance), 의복구매행동(clothes-purchasing behavior), 구매의사결정(purchasing decision-making)

## I. 서론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사회 발전으로 사회 여러 부문의 변화를 가져왔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개인 및 가계 소득이 급증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경제적 풍요는 소비 자원의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 바람직한 소비문화와 소비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이에게는 낭비적 차원의 소비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게다가 소득과 소비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본인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되는 이들이 주요 소비층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소득 창출 능력과 관계없이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 게다가 연령대별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이상의 소비층은 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많은 반면 대학생과 같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포함된 20대 이하의 소비층은 의복이나 명품과 같은 사치재나 선택적 지출에 대한 소비가 많다는 측면에서 젊은층의 비합리적

소비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비슷해가지만 심리적 발달은 경험의 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불균형을 초래하여 미숙하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이기춘, 1985). 대학생은 초·중기 청소년소비자에 비해 아르바이트 기회 및 용돈증가로 보다 높은 수준의 화폐소득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대학생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나 가계와 비교해서 세금납부나 부양의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특성은 화폐소득 증가 현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출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학생신분으로서 시가상조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다(Bailey, 1992; Bene & Southers, 1993; Doss · Marlowe · Godwin, 1995; Newsweek, 1986. 6. 9.; O'Neill, 1992; 정은주, 1996 재인용). 2004년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의 '대학생 용돈관리와 신용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월평균 용돈규모는 20~30만원 미만(33.8%)이 가장 많았고, 용돈의 주 사용용도는 기본적인 필요(needs)인 먹거리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이 39.3%를 차지했고, 선택적 지출(wants)인 즐기기과 멋내기, 핸드폰 사용, 술값의 지출은 46.2%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의복구매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자의적 구매행동이 가능한 품목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 집단은 의복 구매에 있어서 동질적이면서도 다양성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들의 소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의복구입에 지출한다(이수정, 1994)는 측면에서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화폐자원 사용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은 유행을 주도하는 성인층으로 현재의 올바른 자원사용자 역할과 자원사용행동이 준거집단이나 다른 세대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층을 연구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사용행동으로 의복구매행동을 선택하여 화폐자원인 화폐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화폐소득원천별 대학생의 소득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에 따라 의복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자원사용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화폐자원사용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사용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고찰

자원관리체계는 투입(input)과 관리과정(action), 산출(output)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관리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과 피드백이 일어난다(Gross, et.al., 1980).

자원은 요구(demands)와 함께 자원관리체계의 투입요소이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서 자원은 즉시 사용하거나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유보된다(문숙재·김정옥, 1994). 특히 대표적인 물적자원인 화폐자원은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과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유보되는 자원으로의 구분이 뚜렷하다. 자원관리체계에서 자원투입은 관리과정을 유발시키며 자원관리과정 매 단계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이 때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그 가운데 화폐자원은 보다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폐자원으로 현재 사용가능한 화폐소득을 조작화된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원사용행동으로는 의복구매행동, 즉 의복구매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된 일련의 결정행동들을 조작화된 변인으로 설정하여 화폐소득과 의복구매행동의 관계를 연구할 것이므로 화폐소득과 의복구매행동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 1. 화폐소득

#### 1) 소득의 개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업과 교환경제의 발달로 개인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을 통해 구입하고 이를 통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므로 수단으로서 소득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수입이 있다. 수입은 소득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소득 외에도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유입되는 화폐가치, 예를 들어 예금에서 인출한 돈이나 재산 및 유가증권을 매각한 대금, 빌린 돈 등을 포함한다(이승진 외, 2005: 143 재인용). 수입에는 광의의 수입과 협의의 수입으로 나뉘며 광의의 수입이란 가족이 욕망충족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인 또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폐(money)·재

화(goods)·용역(services)을 말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satisfaction)까지 포함한다. 협의의 수입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 경제에 들어오는 모든 화폐가치의 총체, 즉 화폐수입을 지칭한다(이기춘, 1991). 광범위한 개념인 수입에 비해 소득은 일정 기간 내에 개인에게 유입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한다(이승신 외, 2005).

소득 또는 수입에 대한 연구에서 가계단위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은주(1996)는 임금, 사회보장액, 이자, 연금 등을 주된 화폐수입원이라 하였고, 임정빈과 김은희(2000)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주된 가계 소득원이라고 하였다. 개인 단위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화폐수입원에 관한 연구들(YMCA, 2004; 박정숙, 2002; 심영, 2004; 최순중, 2005)에서는 부모님이나 친지 등으로 부터 받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용돈과 아르바이트 등 본인의 노력에 의한 수입을 주 화폐수입원으로 하였으며, 정은주(199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화폐수입을 측정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화폐수입원인 용돈과 근로소득에다 저축인출액을 추가하여 주된 화폐수입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수입은 측정하기 힘들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으로 수입을 정의 내린 후, 대학생은 수입과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가처분 소득과 의복구매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원하므로 수입이 아닌 소득으로 한정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가계의 포괄적인 화폐소득으로 대학생의 화폐소득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선행연구(정은주, 1996)의 청소년 화폐수입원 분류에 기초하여 화폐소득원에 용돈과 근로소득을 포함시켰으며, ‘저축인출액’은 엄밀한 의미에서 당기 소득이 아니며 수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월된 소득으로 보고 ‘저축인출액’도 화폐소득원에 추가하였다. 세 가지 화폐소득원에서 ‘가정경제기여액’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을 ‘총 화폐소득’으로 명명하여 대학생의 화폐소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화폐소득

화폐소득에 관해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가계 소득의 증감에 관한 사회 통계 조사가 대다수이고 대학생의 화폐소득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소비패턴이나 소비문화 전반을 살펴보면 화폐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학년, 부모님 소득 또는 가계소득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은주(1996)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용돈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로소득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여대생의 평균 근로소득은 28만원으로 남대생보다 약 1.4배가 많았고, 비동거하는 경우 여대생이 남대생보다 근로소득이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oschis와 Churchill JR(1979)은 남자청소년들의 소득이 여자청소년의 소득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김나영과 이정림, 현명희(1997)는 성별에 따른 용돈과 근로소득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화폐소득을 살펴보면 김나영 등(1997)은 고학년일수록 용돈이 많고, 저학년일수록 용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근로소득은 김나영 등(1997)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Stern과 Nakata(1991)에서는 학년에 따른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학년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용돈의 차이를 살펴보면 김나영 등(1997)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용돈이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계 소득 변화에 따른 용돈의 변화 인식을 조사한 이은영(1999)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은 가계 소득 변화에 따라 용돈도 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용돈에 대한 의식은 가계 소득의 변화에 따라 조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은 김나영 등(1997)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총 화폐 소득의 경우 정은주(1996)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월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의 총 화폐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용돈과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김나영 등(1997)에서는 용돈과 근로소득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에 따른 용돈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살펴본 김나영 등(1997)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의복구매행동

### 1) 대학생의 소비자행동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달로 재화와 서비스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은 다양한 구매행동을 경험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근거한 시장경제 구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 심리·사회적 조건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소비자행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Loudon과 Della Bitta(1988)는 소비자행동을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취득·사용·처분하는데 관계하는 개인의 정신적 의사결정과정과 신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Ward와 Robertson(1973)은

인간행동의 하위구조로서 소비자와 구매자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행동이 소비자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Engel과 Blackwell, Kollat(1992)은 소비자행동을 개인의 경제재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는 의사결정과정의 포함되며 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행동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행동이란 개인·집단·조직 등 의사결정단위가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사용·처분하는데 따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행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산업화와 개방화시대의 교육을 받고, 풍요와 신용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소비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영상매체의 확산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으로 과거에 비해 소비지향적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김영신, 2003). 특히 대학생은 과거에 비해 가계소득수준의 향상과 아르바이트 기회의 확대에 의해 소비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 집단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서정희·염수경, 1998; 채정숙, 1992). 하지만 대학생은 소비욕구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크고 생활양식이나 소비활동이 왕성한 경제적 의존 그룹이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소비자행동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에 형성된 소비습관이 성인기까지 유지되어 잘못된 소비습관을 좀처럼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소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홍은살·황덕순, 2004). 또한 대학생은 경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가까운 미래에는 한 가정의 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회진출 후에는 여론 선도자로서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이

큰 집단임을 고려해볼 때 사회 전반의 소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fstrom과 Chae, Chung(1992)은 젊은 세대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특별한 집단이며, 소비자 사회화 관점에서 현재의 구매특성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 복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젊은 세대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의 소비자행동 연구는 미래 소비자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나아가 비합리적 소비생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연령적으로 청년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유행에 민감하며 의복 구매에 있어 동질적이면서도 다양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들의 소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의복구입에 지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Horn & Gurel, 1981; 이수정, 1994 재인용), 의복구매행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학생들의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 할 것이다.

## 2) 의복구매행동

의복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이며, 수명주기가 짧고, 사회·심리적 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진다. 또한 의복은 제품의 실용적, 기능적 가치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변화되고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기호를 표현하는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닌 제품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은 개별 소비자마다 다양한 구매행동을 보이지만 이것 역시 일반적인 소비자행동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구매가 성립된다.

의복구매행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금실(1992)은 소비자가 사회 문화적인 환경요인과 개인적 욕구 등의 동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복 제품을 지각하고, 정보를 탐색한 후 제품을 평가·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매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의복구매행동 변인은 의복구매동기, 의복정보원천, 의복선택기준, 점포선택기준, 의복구매장소, 의복구매시기, 의복구매상황, 의복구매빈도, 의복구매가격, 대금지불방법, 의복 불만족 및 불평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김민희, 1998).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매행동을 의복구매동기, 의복정보원천, 의복선택기준, 의복구매시기, 점포선택기준, 의복구매장소, 의복구매빈도, 월평균 의복구매비용, 1회 평균 의복구매비용, 대금지불방법을 의복구매행동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 3)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 관련 선행연구고찰

의복구매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전공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복구매동기를 살펴보면 이수정(1994)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옷이 낡아서,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 사교상의 필요 때문에 의복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새로운 유행을 따라야 할 때나 매장 의복을 보고 구매충동을 느낄 때 의복 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태순과 김성희(1999)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기과시적 구매동기와 유행추구적 구매동기에 더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의복구매동기를 살펴보면 이수정(1994)은 3학년은 옷이 낡았을 때 의복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는 반면, 4학년은 소유하고 있는 옷과의 조화를 위해서, 매장의복을 보고 구매충동을 느낄 때, 사교상의 필요로 의복 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태순 등(1999)에서는 학년에 따른 의복구매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의복구매동기를 살펴보면 이수정(1994)에서는 자연계열 학생은 옷이 낡았을 때 의복구매가 필요하

다고 느끼는 반면 예체능계열 학생은 새로운 유행을 따라야 할 때, 소유하고 있는 옷과의 조화를 위해서, 매장의복을 보고 구매충동을 느낄 때 의복 구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정보원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전공, 재무교육 수강여부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복정보원천을 살펴보면 유태순과 김성희(1999)는 인쇄매체, 관찰요인, 인적정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반응하였으나 과거 경험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정민(1997)에 따르면 남녀대학생 모두 구매경험, 매장연출, 친구·가족의 조언 순으로 많이 이용하며, 판매원의 조언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의복정보원천을 살펴보면 박정민(2002)의 연구에서 1학년은 가족·친구의 조언과 상점판매원의 조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따른 의복정보원천을 살펴보면 ‘상점판매원의 조언’은 자연계열 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정보원천으로 나타났다. 허경옥(2001)에 따르면, 소비자 교육을 받은 학생이 소비자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정보탐색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전공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을 살펴본 이수정(1994)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디자인, 품질과 색상을 더 고려하며, 박정민(1997)에서는 여학생은 의복을 구입할 때 실루엣, 소재를 많이 고려하고, 남학생은 색의 조화, 소재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태순 등(1999)은 의복선택기준을 미적 차원, 기능적 차원, 경제성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미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반응하였으나 경제성 차원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한편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신정희(2001)에서는 의복선택시 여고생은 유행성, 심미성, 개성을 따르나 남고생은 정숙성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을 살펴본 이수정(1994)에서는 1·2·3학년보다 4학년이 의복선택시 품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정민(1997), 유태순 등(1999)에서는 학년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을 살펴보면 이수정(1994)에서는 예체능계열 학생은 디자인과 품질을 보다 중시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상표유명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정민(1997)에서는 자연과학계열일수록 소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매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전공, 용돈수준, 의복비 등으로 나타났다. 의복구매장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정민(1997)은 여대생은 의복구매시 백화점, 양품보세점, 상설할인매장 순으로 이용하는 반면 남학생은 상설할인매장, 백화점, 기성복 직매대리점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태순 등(1999)은 여학생은 양품점과 보세점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은 상설할인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명숙과 정미혜(200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보세점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은 매장구매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수정(1994)에서는 성별에 따른 의복구매장소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의복구매장소를 살펴보면 이수정(1994)의 연구에서는 1학년은 유명메이커 전문점, 기성복대리점, 직매점 대형백화점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2·3학년은 대형백화점, 기성복대리점, 직매점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며, 4학년은 대형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태순 등(1999)에서는 4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백화점에서 의복을 더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의복 구매장소를 살펴보면 이수정(1994)에서는 예체능계열 학생은 대형백화점, 유명메이커 전문점에서 의복을 구매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학생은 대형백화점, 기성복 대리점, 직매점에서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수준에 따른 의복구매장소를 살펴보면 이수정(1994)에서는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대형백화점과 유명메이커 전문점의 이용률이 높고, 용돈이 적을수록 기성복대리점, 직매점, 의류도매상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비에 따른 의복구매장소를 살펴보면 박정민(1997)에서는 의복비 지출에 따라 의복구매점포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평균의복비가 낮을수록 상설할인매장과 의류도매상가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매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면 성별, 전공, 용돈으로 나타났다. 이수정(199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의복구매횟수에 차이가 있어 남학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구입한다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구입한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의복구매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공에 따른 의복구매횟수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1번 구입하며, 예체능계열은 2개월에 1번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체능계열 학생이 의복을 보다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액에 따른 의복구매횟수를 살펴보면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의복구매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으로 나타났다. 유태순 등(1999)은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점포분위기와 상품속성에 더 높게 반응하는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점포입지에 더 높게 반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정민(1997)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점포선택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점포선택기준을 살펴보면 유태순 등(1999)에 따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포선택에 있어 점포입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 전공으로 나타났다. 김혜경과 김정훈(2007)에서는 성별에 따라 의복비 지출에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의복비로 한 달에 약 13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여학생은 의복비로 한 달에 약 17만원을 지출해 여학생의 의복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태순 등(1999)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월평균 의복비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월평균 의복비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태순 등(1999)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저학년에 비해 월 평균 의복 지출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의복비 지출을 살펴보면 박정민(1997)의 연구에서는 예체능계열일수록 의복구입 가격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지불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으로 나타났다. 유태순 등(1999)에 따르면 ‘현금 결제’와 ‘현금과 카드 병행 결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카드 결제’와 ‘상품권 및 할인티켓 결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정민(1997)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대금지불방법을 살펴보면 유태순과 김성희(1999)에 따르면 고학년일수록 현금을 이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카드를 이용하는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허경옥(2001)에 따르면, 소비자 교육을 받은 학생이 소비자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계획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을 연구한 우순이(1996)는 소비자 학습경험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높고 금전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재무 교육 수강여부를 가정경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3. 화폐소득과 의복구매행동

류은정과 김수경(2000)에 따르면, 여대생은 한달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의복구입량과 의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인 이용정도는 용돈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대생들은 의복 구매행동에서 한 달 용돈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수정(1994)에 따르면, 대학생은 의복구입시 용돈이 많을수록 대형백화점과 유명메이커 전문점의 이용율이 높으며, 용돈이 적을수록 기성복대리점, 직매점, 의류도매상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용돈에 따른 의복구매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용돈이 적은 학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의복을 구매하는 반면, 용돈이 많은 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여 용돈과 의복구매횟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용돈에 따른 의복구매동기를 살펴보면 이수정(1994)은 용돈이 많을수록 소유하고 있는 옷과의 조화를 위해서, 구매충동을 느껴서, 사교상의 필요 때문에 의복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소득이 아닌 돈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살펴본 박정숙(2002)의 연구에서는 돈을 ‘성공·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은 친구나 주위사람과 맞추거나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의복 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광고나 타인의 의복 관찰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복선택시 유행성을 중시하며, 의복을 월 1

회 이상 구매하고, 월 평균 약 13만 3천원 정도를 의복비로 지출하고,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정·감정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은 스트레스해소 및 기분전환을 위해 의복을 구매하며, 판매원의 조언에서 정보를 얻고, 의복선택시 상표유명도나 디자인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은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구매하며, 월평균 구매비용은 12만 5천원 정도이고, 점포선택시 품질과 상표명을 중시하고 백화점에서 주로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색·불신’하는 유형은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환을 위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경향은 낮으며, 의복구매시 판매원의 조언에 의지하는 정도가 낮고, 디자인이나 상표유명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은 계절이 바뀔 때 주로 구매하며, 구매비용은 6만 5천원 정도이고 점포선택시 가격과 상표명을 중시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의복구매장소로는 도매점과 보세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돈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도 의복구매행동에는 차이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화폐소득과 의복구매행동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소득 정도와 의복구매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화폐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화폐소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화폐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변인의 정의 및 척도의 구성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개인변인과 가정경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개인변인은 성별, 학년, 전공을 포함하며, 가정경제변인은 가계소득과 가정생활수준, 신용카드 소유여부, 재무교육 수강여부를 포함한다. 가계소득은 월평균 소득으로 100만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질문한 뒤 빈도수를 고려하여 재범주화 하였다. 가정생활 수준은 하류층, 중하층, 중류층, 중상층, 상류층 5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후 역시 빈도수를 고려하여 하류층과 중하층을 하나로, 중류층을 하나로, 중상층과 상류층을 하나로 하여 3범주로 재분류하였다.

### 2) 화폐소득 변인

본 연구에서 화폐소득은 일정한 기간 내에 조사대상 개인에게 들어오는 화폐소득으로 용돈과 근로소득, 저축인출액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서 가정경제 기여액을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총화폐소득으로 삼았다. 화폐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하위변인은 최근 3개월 평균값을 기준으로 ① 한 달 평균 ‘용돈’, ② 한 달 평균 ‘근로소득’, ③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저축인출액’, ④ 월 소득 중 평균적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일정하게 주는 ‘가정경제기여액’으로 각 액수를 적게 하였다.

### 3) 의복구매행동 변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의사결정단계별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선행연구(김민희, 1998; 박정민, 1997; 박정숙, 2002; 신정희, 2001; 유태순·김성희, 1999; 이수정, 1994)를 토대로 각 단계에서 구매행동 주요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복구매행동은 범주형 변인으로 제시하여 조사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주된 의복구매행동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분석시에 ‘기타’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비슷한 문항에 포함시키거나 결측 처리하였다.

문제인식단계에서는 의복구매동기를 측정했으며, 의복구매동기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을 위해’, ‘친구 및 주위사람과 맞추기 위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 ‘소유한 의복이 낡았기 때문에’와 ‘기타’로 구성하였다.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의복정보원천을 측정했으며, 의복정보원천은 ‘판매원의 조언’, ‘본인의 구매 경험’, ‘유명인 및 주위사람의 의복 관찰’, ‘광고’와 ‘기타’로 구성하였다.

대안평가단계에서는 의복선택기준을 측정했으며, 의복선택기준은 ‘품질’, ‘디자인 또는 색상’, ‘가격’,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 ‘기타’로 구성하였다.

구매단계에서는 의복구매시기, 점포선택기준, 의복구매장소, 의복구매빈도, 의복구매비용, 대금지불방법을 측정했다. 의복구매시기는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할인가간’,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기타’로 구성하였으며, 점포선택기준은 ‘상품의 품질 및 디자인’, ‘가격 수준’, ‘점포 이미지 및 판매원의 서비스’, ‘기타’로 구성하였다. 또 의복구매장소는 ‘백화점’, ‘할인매장’, ‘일반 소매점’, ‘인터넷 온라인 매장’, ‘기타’로 구성하였다. 한편 의복구매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

개월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의복을 구매하는지 기록토록 하였으며, 빈도수를 고려하여 ‘월 1회 이하’, ‘월 2회’, ‘월 3회 이상’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의복구매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의복구매비용과 1회 평균 의복구매비용을 기록토록 하였으며, 이들 변수는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의 4개로 재범주화 하였다. 대금지불 방법은 ‘현금 결제’, ‘체크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 3가지로 재범주화 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대학교와 전라남도에도 소재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2007년 5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일부를 수정·보완한 후 다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 중 487부가 회수되었고, 부실 기재되거나 누락된 72부를 제외하고 415부가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독립표본 t검증(t-test)을, 그리고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과 화폐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186(44.8%)
	여자	229(55.2%)
학년	1학년	146(35.2%)
	2학년	87(21.0%)
	3학년	106(25.5%)
	4학년	76(18.3%)
전공	인문사회계열	185(44.6%)
	자연계열	230(55.4%)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09(26.3%)
	200~300만원 미만	112(27.0%)
	300~400만원 미만	108(26.0%)
	400만원 이상	86(20.7%)
가정 생활수준	하류층	156(37.6%)
	중류층	208(50.1%)
	상류층	51(12.3%)
신용카드 소유여부	있다	58(14.0%)
	없다	357(86.0%)
재무교육 수강여부	있다	93(22.4%)
	없다	322(77.6%)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IV. 결과해석

### 1. 화폐소득

#### 1) 화폐소득의 일반적 경향

대학생의 각 화폐소득원별 소득 정도는 <표 2>와 같다. 화폐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용돈이 92%, 저축인출액이 64.6%, 근로소득이 4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92%는 용돈을 받고 있으며, 용돈을 받는 대학생의 평균 용돈 액수는 약 2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40%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평균 근로소득은 약 34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소득활동을 통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용돈

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김정훈(1993)과 정은주(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64.4%의 대학생이 실수입외 수입으로 저축한 돈을 인출하였으며, 저축인출액의 전체 평균은 18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시기가 학기 중인 5월이어서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저축해두었다 학기 중에 용돈이 부족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학생의 19%는 월 소득 중 부모·형제자매에게 일정하게 주는 가정경제 기여액이 있으며 평균액수는 17만원 정도였다.

용돈과 근로소득, 저축인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가정경제 기여액을 차감한 총화폐소득의 평균액은 약 45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생의 화폐소득 실태

(단위: 만원)

화폐소득		N(%)	M(SD)
① 용돈	A	415(100%)	23.3(12.4)
	B	382(92%)	25.4(10.7)
② 근로소득	A	415(100%)	13.6(25.1)
	B	144(40%)	33.9(29.7)
③ 저축인출액	A	415(100%)	11.8(14.0)
	B	268(64.4%)	18.3(13.6)
④ 가정경제기여액	A	415(100%)	3.3(90.8)
	B	79(19.0%)	17.2(14.0)
⑤ 총 화폐소득 (①+②+③-④)		415(100%)	45.5(29.8)

주: A: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B: 화폐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화폐소득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3>).

성별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로소득과 저축인출액, 총 화폐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근로소득은 약 16만원으로 여학생의 약 11만원보다 많았고, 남학생의 저축인출액은 약 13만원으로 여학생의 약 11만원보다 많았다. 남학생의 총 화폐소득은 약 51만원으로 여학생의 약 41만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 결과는 Moschis와 Churchill JR(1979)의 연구와 일치하나 정은주(1996)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으나 근로소득에서는 차이가 나서 이로 인해 저축액이 달라질 것이며, 역시 저축인출액도 차이가 생기며, 총 화폐소득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학년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용돈과 근로소득, 저축인출액, 총 화폐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Duncan의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학년의 용돈은 약 21만원, 2학년은 약 23만원, 3학년은 약 26만원, 4학년은 약 25만원으로 1학년보다 3·4학년의 용돈이 유의하게 많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돈이 증가한다는 김나영 외(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1학년의 근로소득은 약 9만원, 2학년은 약 14만원, 3학년은 약 17만원, 4학년은 약 18만원으로 1학년보다 4학년의 근로소득이 유의하게 많아 학년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많다는 Stern과 Nakata(199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1학년의 저축인출액은 약 9만원, 2학년은 약 8만원, 3학년은 약 15만원, 4학년은 약 16만원으로 1·2학년보다 3·4학년의 저축인출액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1학년의 총 화폐소득은 약 37만원, 2학년은 약 42만원, 3학년은 약 54만원, 4학년은 약 55만원으로 1·2학년보다 3·4학년의 총 화폐소득이 유의하게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화폐소득

(단위: 만원)

		용돈		근로소득		저축인출액		총 화폐소득	
		M(SD)	D	M(SD)	D	M(SD)	D	M(SD)	D
성별	남자(N=186)	24.08(12.99)		16.22(28.24)		13.33(14.48)		50.97(32.42)	
	여자(N=229)	22.72(11.84)		11.38(21.96)		10.55(13.44)		41.03(26.71)	
	t	1.11		1.96*		2.02*		3.43**	
학년	1학년(N=146)	20.98(10.48)	a	9.22(21.36)	a	9.18(10.66)	a	36.63(23.30)	a
	2학년(N=87)	22.85(12.16)	ab	13.63(22.35)	ab	8.59(9.51)	a	42.36(25.37)	a
	3학년(N=106)	25.60(12.56)	b	16.58(30.58)	ab	15.34(17.95)	b	53.69(37.73)	b
	4학년(N=76)	25.22(14.83)	b	17.54(25.20)	b	15.57(15.66)	b	54.64(27.60)	b
	F	3.66**		2.65*		7.71***		10.36***	
전공	인문사회(N=185)	23.31(13.31)		17.24(29.10)		13.21(15.93)		50.38(35.38)	
	자연(N=230)	23.35(11.59)		10.58(20.84)		10.67(12.08)		41.55(23.73)	
	t	-0.03		2.62**		1.80		2.91**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N=109)	16.63(11.97)	a	13.81(23.55)		11.40(12.84)		39.57(29.75)	a
	200~300만원 미만(N=112)	22.56(10.79)	b	11.96(26.34)		11.98(15.75)		44.31(31.97)	a
	300~400만원 미만(N=108)	25.77(11.76)	c	11.83(20.34)		11.37(12.37)		45.34(22.21)	a
	400만원 이상(N=86)	29.76(11.39)	d	17.44(30.05)		12.60(14.95)		54.70(33.27)	b
	F	23.13***		1.01		0.16		4.34**	
가정 생활 수준	하류층(N=156)	19.84(11.74)	a	13.12(25.39)		11.10(12.89)		42.24(30.86)	a
	중류층(N=208)	24.50(11.48)	b	12.00(21.57)		12.05(14.59)		45.19(27.44)	a
	상류층(N=51)	29.22(14.64)	c	21.18(34.66)		12.92(14.68)		56.65(33.38)	b
	F	13.72***		2.81		0.39		4.60**	
신용 카드	없다(N=357)	22.65(11.95)		12.36(23.01)		11.14(12.91)		43.36(27.59)	
	있다(N=58)	27.50(14.09)		20.86(34.49)		15.84(18.86)		58.60(38.53)	
	t	-2.79**		-1.81*		-1.83		-3.67***	
재무 교육	없다(N=322)	23.20(12.57)		14.06(26.28)		11.66(14.43)		45.87(31.99)	
	있다(N=93)	23.80(11.70)		11.77(20.28)		12.28(12.29)		44.15(20.47)	
	t	-0.41		0.78		-0.38		0.62)	

\*p<.05 \*\*p<.01 \*\*\*p<.001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더 많았다.

전공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로소득과 총 화폐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근로소득은 약 17만원, 자연계열 학생의 근로소득은 약 11만원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근

로소득이 자연계열 학생보다 많았다. 또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총 화폐소득은 약 50만원, 자연계열 학생의 총 화폐소득은 약 42만원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화폐소득이 자연계열 학생보다 더 많았다.

가계소득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용돈과 총 화폐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Duncan의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의 용돈은 약 17만원, 가계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의 용돈은 약 23만원, 가계소득이 '300~4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의 용돈은 약 26만원,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의 용돈은 약 30만원으로 가계소득에 비례하여 용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나영 외(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총 화폐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의 대학생의 화폐소득은 약 40만원,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가계의 대학생의 화폐소득은 약 44만원, 소득이 '300~400만원 미만'인 가계의 대학생의 화폐소득은 약 45만원,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계의 대학생의 화폐소득은 약 55만원이었으며,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계의 대학생이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의 대학생의 화폐소득보다 더 많았다.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용돈과 총화폐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수준을 하류층이라고 인정한 대학생의 용돈은 약 20만원, 중류층이라고 인정한 대학생은 약 25만원, 상류층이라고 인정한 대학생은 약 29만원으로 가정생활수준에 비례하여 대학생 자녀의 용돈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총 화폐소득을 살펴보면 가정을 하류층이라고 인정한 대학생의 총 화폐소득은 약 42만원, 중류층이라고 인정한 대학생은 약 45만원, 상류층이라고 인정한 대학생은 약 57만원으로 가정생활수준에 비례하여 대학생 자녀의 총 화폐소득이 증가하며, 가정생활수준이 하류층과 중류층인 대학생보다

상류층인 대학생의 총 화폐소득이 더 많았다.

신용카드 소유여부에 따른 화폐소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용돈과 근로소득, 총화폐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의 용돈은 약 23만원,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약 28만원으로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이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보다 용돈이 더 많았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의 근로소득은 약 12만원,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약 21만원으로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이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았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의 총 화폐소득은 약 43만원,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약 59만원으로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이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보다 총 화폐소득이 더 많았다. 이는 화폐소득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대학생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경제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용카드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의 부담으로 대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용돈을 받거나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더 많이 하여 화폐소득을 증가시킨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재무관리 수감여부에 따른 화폐소득 차이 검증 결과 용돈, 근로소득, 저축인출액, 가정경제기여액, 총 화폐소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의복구매행동

### 1) 의복구매행동의 일반적 경향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문제인식단계에서 대학생이 의복을 구매하는 동기는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가 41.7%, '소유한 의복이 낡았기 때문에'가 26.1%, '스트레스 해소

〈표 4〉 의복구매행동의 일반적 경향

1. 문제인식		점포선택기준	N(%)
의복구매동기	N(%)	상품의 품질 및 디자인	262(63.7)
스트레스해소 및 기분전환	77(18.8)	가격 수준	125(30.4)
친구·주위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29(7.1)	점포 이미지 및 판매원의 서비스	24(5.8)
유행을 따르기 위해	26(6.3)	의복구매장소	N(%)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	171(41.7)	백화점	80(19.4)
소유한 의복이 낡았기 때문에	107(26.1)	할인 매장	69(16.7)
2. 정보탐색		일반 소매점	147(35.6)
의복정보원천	N(%)	인터넷 온라인 매장	117(27.6)
판매원의 조언	16(3.9)	의복구매빈도	N(%)
본인의 구매경험	230(55.8)	월 1회 이하	251(60.5)
유명인 및 주위사람의 의복 관찰	119(28.9)	월 2회	103(24.8)
잡지나 TV 등의 광고	47(11.4)	월 3회 이상	61(14.7)
3. 대안평가		월 평균 의복 구매비용	N(%)
의복선택기준	N(%)	5만원 미만	52(12.5)
품질(천·재봉)	40(9.7)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9(26.3)
디자인 및 색상	304(73.8)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2(36.6)
가격	45(10.9)	15만원 이상	102(24.6)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	23(5.6)	1회 평균 의복 구매비용	N(%)
4. 구매		5만원 미만	88(21.2)
의복구매시기	N(%)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56(37.6)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	105(25.3)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28(30.8)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40(9.6)	15만원 이상	43(10.4)
할인기간	67(16.1)	대금지불방법	N(%)
필요시 아무 때나	203(48.9)	현금 결제	236(56.9)
		체크카드 결제	104(25.1)
		신용카드 결제	75(18.1)

주: 빈도의 차이는 결측값(Missing Value)에 의한 것임.

및 기분전환을 위해서'가 18.8%, '친구 및 주위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7.1%,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가 6.3%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은 주로 기존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 보충적으로 의복을 구매하며, 주변 사람과 어울리거나 유행을 따르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대학생은 의복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걸치레나 유행에 얽매

이기 보다는 합리적인 동기로 의복을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탐색단계에서 대학생의 의복정보원천은 '본인의 구매경험'이 55.8%, '유명인 및 주위사람의 의복 관찰'이 28.9%, '잡지나 TV 등의 광고'가 11.4%, '판매원의 조언'이 3.9%로 의복을 구매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외적정보원천 보다는 내적정보원천인 본인의 구매경험을

보다 신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은 돈에 대한 태도와는 상관없이 의복구매시 본인의 구매경험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박정숙(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대안평가단계에서는 의복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의복선택기준은 ‘디자인 및 색상’이 73.8%, ‘가격’이 10.9%, ‘품질’이 9.7%,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가 5.6%로 대학생은 의복선택시 디자인이나 색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매단계에서는 의복구매시기, 점포선택기준, 의복구매장소, 의복구매빈도, 월평균 의복 구매비용, 1회 평균 의복 구매비용, 대금지불방법을 살펴보았다. 대학생이 주로 의복을 구매하는 시기는 ‘필요시 아무 때나’가 48.9%,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가 25.3%, ‘할인기간’이 16.1%,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가 9.6%로 나타나 의복구매시기에서 대학생들은 비교적 무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구매시 대학생이 점포를 선택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상품의 품질 및 디자인’이 63.7%, ‘가격수준’이 30.4%, ‘점포 이미지 및 판매원의 서비스’가 5.8%로 나타나 대학생은 점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품의 품질 및 디자인을 가장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의복구매시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의복구매장소는 ‘일반소매점’이 35.6%, ‘인터넷 온라인 매장’이 27.6%, ‘백화점’이 19.4%, ‘할인매장’이 16.7%를 차지하여 일반소매점을 주로 이용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의복구매빈도는 1개월 기준으로 ‘1회 이하’가 60.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회’ 24.8%, ‘3회 이상’은 14.7%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월 1회 이하 의복을 구매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월평균 의복구매비용은 ‘10~15만원 미만’이 36.6%, ‘5~10만원 미만’이 26.3%, ‘15만원 이상’이 24.6%, ‘5만원 미만’이 12.5%로 대학생은 주로 1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가량의 의복비를 지출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1회 평균 의복구매비용은 ‘5~10만원 미만’이 37.6%, ‘10~15만원 미만’이 30.8%, ‘5만원 미만’이 21.2%, ‘15만원 이상’이 10.4%로 나타나 대학생은 주로 의복 구매시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함을 알 수 있다. 의복구매시 대금지불방법은 ‘현금 결제’가 56.9%, ‘체크카드 결제’가 25.1%, ‘신용카드 결제’가 18.1%로 나타났다. 체크카드가 본인 은행 계좌잔고 내에서 결제되므로 현금과 유사한 결제 방법이라고 할 때, 아직까지 대학생은 현금을 보편적인 결제 방법으로 사용하며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동기를 살펴보면 성별, 가계소득, 생활수준, 신용카드 소유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을 위해서’와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소유한 의복이 낡아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적 소구에 의해 의복을 구매함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이 ‘소유한 의복이 낡아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수정(1994)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 ‘소유한 의복이 낡아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을 위해서’,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가계소득이 높은 대학생은 감정적인 동기에 의해



〈표 5-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1

		성별		학년				전공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사회	자연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의복 구매 동기	① (18.8%)	25(13.4)	52(23.2)	25(17.2)	8(9.3)	29(27.4)	15(20.5)	39(21.5)	38(16.6)	
	② (7.1%)	17(9.1)	12(5.4)	11(7.6)	8(9.3)	8(7.5)	2(2.7)	12(6.6)	17(7.4)	
	③ (6.3%)	12(6.5)	14(6.3)	8(5.5)	7(8.1)	6(5.7)	5(6.8)	9(5.0)	17(7.4)	
	④ (41.7%)	70(37.6)	101(45.1)	59(40.7)	38(44.2)	43(40.6)	31(42.5)	71(39.2)	100(43.7)	
	⑤ (26.1%)	62(33.3)	45(20.1)	42(29.0)	25(29.1)	20(18.9)	20(27.4)	50(27.6)	57(24.9)	
	$\chi^2$	15.42**		15.03				3.14		
의복 정보 원천	⑥ (3.9%)	10(5.4)	6(2.7)	3(2.1)	6(7.1)	4(3.8)	3(3.9)	11(6.0)	5(2.2)	
	⑦ (55.8%)	96(51.6)	134(59.3)	80(55.2)	46(54.1)	57(53.8)	47(61.8)	113(62.1)	117(50.9)	
	⑧ (28.9%)	57(30.6)	62(27.4)	46(31.7)	23(27.1)	29(27.4)	21(27.6)	46(25.3)	73(31.7)	
	⑨ (11.4%)	23(12.4)	24(10.6)	16(11.0)	10(11.8)	16(15.1)	5(6.6)	12(6.6)	35(15.2)	
		$\chi^2$	3.66		7.54				14.30**	
의복 선택 기준	⑩ (9.7%)	17(9.2)	23(10.1)	15(10.3)	6(6.9)	10(9.5)	9(12.0)	17(9.3)	23(10.0)	
	⑪ (73.8%)	126(68.5)	178(78.1)	105(72.4)	66(75.9)	77(73.3)	56(74.7)	135(74.2)	169(73.5)	
	⑫ (10.9%)	29(15.8)	16(7.0)	16(11.0)	10(11.5)	12(11.4)	7(9.3)	20(11.0)	25(10.9)	
	⑬ (5.6%)	12(6.5)	11(4.8)	9(6.2)	5(5.7)	6(5.7)	3(4.0)	10(5.5)	13(5.7)	
		$\chi^2$	9.00*		1.95				0.06	
의복 구매 시기	⑭ (25.3%)	46(24.7)	59(25.8)	39(26.7)	18(20.7)	32(30.2)	16(21.1)	53(28.6)	52(22.6)	
	⑮ (9.6%)	20(10.8)	20(8.7)	14(9.6)	13(14.9)	8(7.5)	5(6.6)	19(10.3)	21(9.1)	
	⑯ (16.1%)	37(19.9)	30(13.1)	22(15.1)	17(19.5)	15(14.2)	13(17.1)	27(14.6)	40(17.4)	
	⑰ (48.9%)	83(44.6)	120(52.4)	71(48.6)	39(44.8)	51(48.1)	42(55.3)	86(46.5)	117(50.9)	
		$\chi^2$	4.68		8.12				2.52	
점포 선택 기준	⑱ (63.7%)	113(61.1)	149(65.9)	91(63.2)	58(67.4)	67(63.8)	46(60.5)	120(65.9)	142(62.0)	
	⑲ (30.4%)	62(33.5)	63(27.9)	49(34.0)	21(24.4)	30(28.6)	25(32.9)	50(27.5)	75(32.8)	
	⑳ (5.8%)	10(5.4)	14(6.2)	4(2.8)	7(8.1)	8(7.6)	5(6.6)	12(6.6)	12(5.2)	
		$\chi^2$	1.55		5.96				1.49	
	의복 구매 장소	㉑ (19.4%)	33(17.8)	47(20.6)	14(16.1)	21(20.0)	22(28.9)	39(21.2)	15(13.8)	17(15.5)
㉒ (16.7%)		39(21.1)	30(13.2)	18(20.7)	16(15.2)	13(17.1)	25(13.6)	21(19.3)	24(21.8)	
㉓ (35.6%)		59(31.9)	88(38.6)	35(40.2)	36(34.3)	21(27.6)	69(37.5)	40(36.7)	39(35.5)	
㉔ (27.6%)		54(29.2)	63(27.6)	20(23.0)	32(30.5)	20(26.3)	51(27.7)	33(30.3)	30(27.3)	
		$\chi^2$	5.62		15.9				17.9	
의복 구매 빈도	㉕ (60.5%)	133(71.5)	118(51.5)	78(53.4)	58(66.7)	64(60.4)	51(67.1)	113(61.1)	138(60.0)	
	㉖ (24.8%)	36(19.4)	67(29.3)	46(31.5)	17(19.5)	25(23.6)	15(19.7)	42(22.7)	61(26.5)	
	㉗ (14.7%)	17(9.1)	44(19.2)	22(15.1)	12(13.8)	17(16.0)	10(13.2)	30(16.2)	31(13.5)	
		$\chi^2$	17.91***		7.08				1.15	
	월평 균의 복비	㉘ (12.5%)	27(14.5)	25(10.9)	17(11.6)	9(10.3)	14(13.2)	12(15.8)	30(16.2)	22(9.6)
㉙ (26.3%)		56(30.1)	53(23.1)	33(22.6)	26(29.9)	30(28.3)	20(26.3)	44(23.8)	65(28.3)	
㉚ (36.6%)		67(36.0)	85(37.1)	60(41.1)	32(36.8)	34(32.1)	26(34.2)	67(36.2)	85(37.0)	
㉛ (24.6%)		36(19.4)	66(28.8)	36(24.7)	20(23.0)	28(26.4)	18(23.7)	44(23.8)	58(25.2)	
		$\chi^2$	6.73		4.23				4.50	
1회 평균 의복 비	㉜ (21.2%)	33(17.7)	55(24.0)	33(22.6)	16(18.4)	24(22.6)	15(19.7)	38(20.5)	50(21.7)	
	㉝ (37.6%)	74(39.8)	82(35.8)	53(36.3)	38(43.7)	44(41.5)	21(27.6)	78(42.2)	78(33.9)	
	㉞ (30.8%)	62(33.3)	66(28.8)	44(30.1)	25(28.7)	28(26.4)	31(40.8)	47(25.4)	81(35.2)	
	㉟ (10.4%)	17(9.1)	26(11.4)	16(11.0)	8(9.2)	10(9.4)	9(11.8)	22(11.9)	21(9.1)	
		$\chi^2$	3.50		7.67				5.88	
대금 지불 방법	㊱ (56.9%)	104(55.9)	132(57.6)	85(58.2)	52(59.8)	59(55.7)	40(52.6)	95(51.4)	141(61.3)	
	㊲ (25.1%)	48(25.8)	56(24.5)	30(20.5)	21(24.1)	29(27.4)	24(31.6)	46(24.9)	58(25.2)	
	㊳ (18.1%)	34(18.3)	41(17.9)	31(21.2)	14(16.1)	18(17.0)	12(15.8)	44(23.8)	31(13.5)	
		$\chi^2$	0.14		4.46				7.81*	

주: ①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② 친구 및 주위 사람과 맞추려고 ③ 유행을 따르기 위해 ④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 ⑤ 소유한 의복이 남아서 ⑥ 판매원의 조언 ⑦ 본인 구매경험 ⑧ 유명한 및 주위사람 의복관찰 ⑨ 잡지·TV 광고 ⑩ 품질 ⑪ 디자인 및 색상 ⑫ 가격 ⑬ 유행성·상표유명도 ⑭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 ⑮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⑯ 할인기간 ⑰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⑱ 상품의 품질 ⑲ 가격 수준 ⑳ 판매원의 서비스 및 점포이미지 ㉑ 백화점 ㉒ 할인매장 ㉓ 일반소매점 ㉔ 인터넷 온라인 매장 ㉕ 월1회 이하 ㉖ 월2회 ㉗ 월3회 이상 ㉘ 5만원 미만 ㉙ 5~10만원 ㉚ 10~15만원 ㉛ 15만원 이상 ㉜ 5만원미만 ㉝ 5~10만원 ㉞ 10~15만원 ㉟ 15만원 이상 ㊱ 현금 ㊲ 체크카드 ㊳ 신용카드

\*p<.05 \*\*p<.01 \*\*\*p<.001

(표 5-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2

		가계소득				생활수준			신용카드		재무교육		
		200만원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만원 이상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N(열%)	
의복 구매 동기	① (18.8%)	18(16.7)	11(10.0)	25(23.1)	23(27.1)	18(11.8)	43(20.7)	16(32.0)	58(16.4)	19(33.3)	57(18.0)	20(21.5)	
	② (7.1%)	7(6.5)	9(8.3)	4(3.7)	9(10.6)	11(7.2)	13(6.3)	5(10.0)	26(7.4)	3(5.3)	26(8.2)	3(3.2)	
	③ (6.3%)	3(2.8)	4(3.7)	10(9.3)	9(10.6)	5(3.3)	15(7.2)	6(12.0)	23(6.5)	3(5.3)	18(5.7)	8(8.6)	
	④ (41.7%)	49(45.4)	51(46.8)	39(36.1)	32(37.6)	65(42.8)	88(42.3)	18(36.0)	157(44.5)	14(24.6)	127(40.1)	44(47.3)	
	⑤ (26.1%)	31(28.7)	34(31.2)	30(27.8)	12(14.1)	53(34.9)	49(23.6)	5(10.0)	89(25.2)	18(31.6)	89(28.1)	18(19.4)	
	$\chi^2$	27.91***				25.17**			13.32**		6.96		
의복 정보 원천	⑥ (3.9%)	7(6.5)	3(2.7)	3(2.8)	3(3.5)	10(6.5)	4(1.9)	2(4.0)	14(4.0)	2(3.4)	13(4.1)	3(3.2)	
	⑦ (55.8%)	43(40.2)	70(62.5)	65(60.2)	52(61.2)	78(50.3)	123(59.4)	29(58.0)	193(54.5)	37(63.8)	180(56.4)	50(53.8)	
	⑧ (28.9%)	43(40.2)	29(25.9)	25(23.1)	22(25.9)	48(31.0)	58(28.0)	13(26.0)	106(29.9)	13(22.4)	94(29.5)	25(26.9)	
	⑨ (11.4%)	14(13.1)	10(8.9)	15(13.9)	8(9.4)	19(12.3)	22(10.6)	6(12.0)	41(11.6)	6(10.3)	32(10.0)	15(16.1)	
		$\chi^2$	17.44*				6.68			1.85		2.74	
의복 선택 기준	⑩ (9.7%)	7(6.5)	8(7.1)	12(11.2)	13(15.1)	11(7.2)	25(12.0)	4(7.8)	29(8.2)	11(19.3)	25(7.8)	15(16.1)	
	⑪ (73.8%)	79(73.8)	86(76.8)	79(73.8)	60(69.8)	114(74.5)	151(72.6)	39(76.5)	264(74.4)	40(70.2)	237(74.3)	67(72.0)	
	⑫ (10.9%)	18(16.8)	14(12.5)	7(6.5)	6(7.0)	22(14.4)	21(10.1)	2(3.9)	44(12.4)	1(1.8)	36(11.3)	9(9.7)	
	⑬ (5.6%)	3(2.8)	4(3.6)	9(8.4)	7(7.1)	6(3.9)	11(5.3)	6(11.8)	18(5.1)	5(8.8)	21(6.6)	2(2.2)	
		$\chi^2$	16.63*				10.80			12.68**		7.85*	
의복 구매 시기	⑭ (25.3%)	33(30.3)	17(15.2)	28(25.9)	27(31.4)	33(21.2)	57(27.4)	15(29.4)	85(23.8)	20(34.5)	79(24.5)	26(28.0)	
	⑮ (9.6%)	13(11.9)	11(9.8)	10(9.3)	6(7.0)	20(12.8)	16(7.7)	4(7.8)	36(10.1)	4(6.9)	34(10.6)	6(6.5)	
	⑯ (16.1%)	13(11.9)	19(17.0)	21(19.4)	14(16.3)	23(14.7)	34(16.3)	10(19.6)	60(16.8)	7(12.1)	51(15.8)	16(17.2)	
	⑰ (48.9%)	50(45.9)	65(58.0)	49(45.4)	39(45.3)	80(51.3)	101(48.6)	22(43.1)	176(49.3)	27(46.6)	158(49.1)	45(48.4)	
		$\chi^2$	12.71				5.50			3.54		1.69	
점포 선택 기준	⑱ (63.7%)	60(55.0)	73(65.8)	72(68.6)	57(66.3)	87(56.5)	144(69.2)	31(63.3)	224(63.1)	38(67.9)	200(62.7)	62(67.4)	
	⑲ (30.4%)	41(37.6)	33(39.7)	27(25.7)	24(27.9)	57(37.0)	53(25.5)	15(30.6)	113(31.8)	12(21.4)	98(30.7)	27(29.3)	
	⑳ (5.8%)	8(7.3)	5(4.5)	6(5.7)	5(5.8)	10(6.5)	11(5.3)	3(6.1)	18(5.1)	6(10.7)	21(6.6)	3(3.3)	
		$\chi^2$	5.41				6.35			4.53		1.64	
	의복 구매 장소	㉑ (19.4%)	25(29.1)	17(4.1)	23(5.6)	25(6.1)	18(11.7)	47(22.6)	15(29.4)	61(17.2)	19(32.8)	59(18.3)	21(23.1)
㉒ (16.7%)		7(8.1)	24(5.8)	17(4.1)	7(1.7)	29(18.8)	35(16.8)	5(9.8)	63(17.7)	6(10.3)	56(17.4)	13(14.3)	
㉓ (35.6%)		27(31.4)	39(9.4)	41(9.9)	27(6.5)	66(42.9)	68(32.7)	13(25.5)	131(36.9)	16(27.6)	112(34.8)	35(38.5)	
㉔ (27.6%)		27(31.4)	30(7.3)	27(6.5)	27(6.5)	41(26.6)	58(27.9)	18(35.3)	100(28.2)	17(29.3)	95(29.5)	22(24.2)	
		$\chi^2$	21.30				15.62*			9.12*		2.22	
의복 구매 빈도	㉕ (60.5%)	80(73.4)	71(63.4)	53(49.1)	47(54.7)	108(69.2)	119(57.2)	24(47.1)	225(63.0)	26(44.8)	191(59.3)	60(64.5)	
	㉖ (24.8%)	16(14.7)	27(24.1)	34(31.5)	26(30.2)	34(21.8)	57(27.4)	12(23.5)	84(23.5)	19(32.8)	80(24.8)	23(24.7)	
	㉗ (14.7%)	13(11.9)	14(12.5)	21(19.4)	13(15.1)	14(9.0)	32(15.4)	15(29.4)	48(13.4)	13(22.4)	51(15.8)	10(10.8)	
		$\chi^2$	16.06*				16.09**			7.17*		1.59	
	월평 균의 복비	㉘ (12.5%)	22(20.2)	13(11.6)	10(9.3)	7(8.1)	28(17.9)	20(9.6)	4(7.8)	51(14.3)	1(1.7)	31(9.6)	21(22.6)
㉙ (26.3%)		36(33.0)	34(30.4)	26(24.1)	13(15.1)	44(28.2)	57(27.4)	8(15.7)	102(28.6)	7(12.1)	83(25.8)	26(28.0)	
㉚ (36.6%)		41(37.6)	45(40.2)	37(34.3)	29(33.7)	59(37.8)	78(37.5)	15(29.4)	124(34.7)	28(48.3)	126(39.1)	26(28.0)	
㉛ (24.6%)		10(9.2)	20(17.9)	35(32.4)	37(43.0)	25(16.0)	53(25.5)	24(47.1)	80(22.4)	22(37.9)	82(25.5)	20(21.5)	
		$\chi^2$	42.25***				24.49***			18.85***		12.71**	
1회 평균 의복 비	㉜ (21.2%)	36(33.0)	24(21.4)	18(16.7)	10(11.6)	42(26.9)	39(18.8)	7(13.7)	75(21.0)	13(22.4)	75(21.0)	13(22.4)	
	㉝ (37.6%)	42(38.5)	48(42.9)	39(36.1)	27(31.4)	58(37.2)	76(36.5)	22(43.1)	141(39.5)	15(25.9)	141(39.5)	15(25.9)	
	㉞ (30.8%)	27(24.8)	30(26.8)	40(37.0)	31(36.0)	47(30.1)	66(31.7)	15(29.4)	110(30.8)	18(31.0)	110(30.8)	18(31.0)	
	㉞ (10.4%)	4(3.7)	10(8.9)	11(10.2)	18(20.9)	9(5.8)	27(13.0)	7(13.7)	31(8.7)	12(20.7)	31(8.7)	12(20.7)	
		$\chi^2$	31.96***				10.05			9.46*		3.93	
대금 지불 방법	㉟ (56.9%)	71(65.1)	63(56.3)	64(59.3)	38(44.2)	95(60.9)	117(65.3)	24(47.1)	224(62.7)	12(20.7)	189(58.7)	47(50.5)	
	㊱ (25.1%)	24(22.0)	32(28.6)	26(24.1)	22(25.6)	40(25.6)	46(22.1)	18(35.3)	95(26.6)	9(15.5)	79(24.5)	25(26.9)	
	㊱ (18.1%)	14(12.8)	17(15.2)	18(16.7)	26(30.2)	21(13.5)	45(21.6)	9(17.6)	38(10.6)	37(63.8)	54(16.8)	21(22.6)	
		$\chi^2$	14.19*				7.50			95.96***		2.35	

주: ① 스트레스 해소 · 기분전환 ② 친구 및 주위 사람과 맞추려고 ③ 유행을 따르기 위해 ④ 소소한 의복과의 조화 ⑤ 소소한 의복이 낱아서 ⑥ 판매원의 조언 ⑦ 본인 구매경험 ⑧ 유명한 및 주위사람 의복관찰 ⑨ 잡지 · TV 광고 ⑩ 품질 ⑪ 디자인 및 색상 ⑫ 가격 ⑬ 유행성 · 상표유명도 ⑭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 ⑮ 뽀빠의 소득이 생겼을 때 ⑯ 할인기간 ⑰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⑱ 상품의 품질 ⑲ 가격 수준 ⑳ 판매원의 서비스 및 점포이미지 ㉑ 백화점 ㉒ 할인매장 ㉓ 일반소매점 ㉔ 인터넷 온라인 매장 ㉕ 월1회 이하 ㉖ 월2회 ㉗ 월3회 이상 ㉘ 5만원 미만 ㉙ 5~10만원 ㉚ 10~15만원 ㉛ 15만원 이상 ㉜ 5만원 미만 ㉝ 5~10만원 ㉞ 10~15만원 ㉟ 15만원 이상 ㊱ 현금 ㊱ 체크카드 ㊱ 신용카드

\*p<.05 \*\*p<.01 \*\*\*p<.001

의복을 구매하나 가계소득이 낮은 대학생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의복을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이 하류층인 대학생은 '소유한 의복이 낡아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수준이 상류층인 대학생은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을 위해서'와 '친구 및 주위 사람과 맞추려고',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생활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감정적이고 동조적, 유행 추종적인 동기 하에 의복을 구매하나 생활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보다 절약적인 생활을 하며 경제적 소구에 의해 의복을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은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고,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을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동기 하에 의복을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정보원천을 살펴보면 전공과 가계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본인의 구매경험'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고, 자연계열 학생은 '유명인 및 주위 사람의 의복관찰'과 '잡지나 TV 등의 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다. 즉,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내적정보원천을 보다 더 신뢰하고 자연계열 학생은 타인이나 매스컴과 같은 외적정보원천을 보다 더 신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계열 학생이 주된 정보원으로 '상점판매원의 조언'을 꼽은 선행연구결과(박정숙, 2002)와 일치한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판매원의 조언'과 '유명인 및 주위 사람의 의복관찰'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본인의 구매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의 대

학생은 의복구매 경험이 보다 적기 때문에 내적정보원천을 활용하기 보다는 판매원이나 유명인 등의 외적정보원천을 보다 더 신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을 살펴보면 성별, 가계소득, 신용카드 소유여부, 재무교육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가격'을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여학생은 '디자인 및 색상'을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여학생은 미적 요소를 더 중시하며 남학생은 경제적 요소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디자인이나 품질, 색상을 더 고려하고(이수정, 1994), 미적차원을 선택기준(유태순 외, 1999)으로 더 많이 반응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이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가격'을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디자인 및 색상'을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3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와 '품질'을 보고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대학생은 고품질의 유명 상표 의복을 구매하는 반면 가계소득이 낮은 대학생은 가격이 보다 저렴한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은 '가격'을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품질'과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를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가계소득이 높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보다 중요한 의복선택기준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은 가계소득이 낮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보다 중요한 의복선택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집단에서는 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학생이 신용카드를 소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재무교육 수강 경험

이 있는 대학생은 ‘품질’을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를 보고 의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 재무교육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은 특정한 기준을 두고 의복을 선택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끌고루 고려하여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의복선택시 과시적 요소보다는 질적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재무교육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시기와 점포선택기준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장소를 살펴보면 생활수준, 신용카드 소유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하류층인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일반소매점’과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상류층인 대학생은 ‘백화점’과 ‘인터넷 온라인매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소유한 학생은 고가의 의복이 판매되는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저가의 의복이 판매되는 할인매장은 자주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소유여부가 의복구매장소 뿐만 아니라 의복비 지출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구매빈도를 살펴보면 성별, 가계소득, 생활수준, 신용카드 소유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의복을 ‘월 2회’와 ‘월 3회 이상’ 구매하는 빈도가 높고, 남학생은 ‘월 1회 이하’ 의복을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을 보다 자주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입한다가, 남학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구입한다가 각각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이수정, 1994)와 비슷한 결과이다.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의복을 ‘월 1회 이하’ 구매하는 빈도가 높고,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의복을 ‘월 2회’와 ‘월 3회 이상’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다. 즉 가계소득이 많은 대학생이 가계소득이 적은 대학생보다 의복을 보다 자주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이 하류층인 대학생은 의복을 ‘월 1회 이하’ 구매하는 빈도가 높고, 생활수준이 중류층인 대학생은 의복을 ‘월 2회’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다. 또 생활수준이 상류층인 대학생은 의복을 ‘월 3회 이상’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다. 즉, 생활수준이 높은 대학생이 생활수준이 낮은 대학생보다 의복을 더 자주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은 의복을 ‘월 1회 이하’ 구매하는 빈도가 높고,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의복을 ‘월 2회’와 ‘월 3회 이상’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다. 즉,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이 의복구매가 보다 잦으므로 과소비 가능성이 보다 증가하므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도가 요구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월 평균 의복비 지출을 살펴보면 경제변인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반면 개인변인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수준이 하류층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수준이 상류층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대학생이 생활수준

이 낮다고 지각한 대학생보다 월 평균 의복비 지출이 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이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보다 의복비 지출이 보다 더 많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소유는 과소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0~1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월 평균 의복비 지출이 보다 적다는 결과는 재무교육이 절약적인 소비태도 형성에 기여하며 재무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허경옥(2001)에 따르면 소비자교육을 받은 학생이 소비자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계획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1회 평균 의복비 지출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신용카드 소유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1회 평균 의복비로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1회 평균 의복비로 '5~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계소득이 '300~4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1회 평균 의복비로 '10~1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1회 평균 의복비로 '10~15만원 미만'과 '1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가계소득에 비례하여 대학생의 1회 평균 의복비 지출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은 1회 평균 의

복비로 '5~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1회 평균 의복비로 '1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이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보다 1회 평균 의복비 지출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금지불방법을 살펴보면 전공, 가계소득, 신용카드 소유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높고, 자연계열 대학생은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았다. 즉,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의복구매시 신용카드 이용에 보다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현금 결제'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높았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생은 현금 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현금 결제' 비율이 높고,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은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높았다. 즉,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이 필연적으로 신용카드를 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화폐소득과 의복구매행동

화폐소득에 따라 의복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독립변인인 총화폐소득과 하위변인인 용돈과 근로소득, 저축인출액은 빈도(백분율)를 참고하여 구간을 나누었다.

#### 1) 용돈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용돈액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의복구매동기, 의복선택기준, 의복구매빈도, 월 평균 의복비, 1회 평균 의복비에서

〈표 6-1〉 화폐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1

		용돈			근로소득			저축인출액		
		20만원미만 N(열%)	20~40 N(열%)	40만원이상 N(열%)	20만원미만 N(열%)	20~40 N(열%)	40만원이상 N(열%)	10만원미만 N(열%)	10~30 N(열%)	30만원이상 N(열%)
의복 구매 동기	① (18.8%)	24(20.2)	39(16.6)	14(25.0)	45(15.4)	21(29.6)	11(23.9)	29(14.1)	30(21.7)	18(27.3)
	② (7.1%)	6(5.0)	17(7.2)	6(10.7)	22(7.5)	6(8.5)	1(2.2)	18(8.7)	8(5.8)	3(4.5)
	③ (6.3%)	5(4.2)	11(4.7)	10(17.9)	20(6.8)	2(2.8)	4(8.7)	15(7.3)	5(3.6)	6(9.1)
	④ (41.7%)	52(43.7)	103(43.8)	16(28.6)	124(42.3)	30(42.3)	17(37.0)	87(42.2)	59(42.8)	25(37.9)
	⑤ (26.1%)	32(26.9)	65(27.7)	10(17.9)	82(28.0)	12(16.9)	13(28.3)	57(27.7)	36(26.1)	14(21.2)
	$\chi^2$		21.61**			13.68			11.09	
의복 정보 원천	⑥ (3.9%)	5(4.2)	9(3.8)	2(3.5)	9(3.1)	6(8.3)	1(2.1)	7(3.3)	7(5.1)	2(3.0)
	⑦ (55.8%)	61(51.3)	136(57.6)	33(57.9)	164(56.0)	35(48.6)	31(66.0)	117(56.0)	75(54.7)	38(57.6)
	⑧ (28.9%)	40(33.6)	63(26.7)	16(28.1)	85(29.0)	22(30.6)	12(25.5)	61(29.2)	40(29.2)	18(27.3)
	⑨ (11.4%)	13(10.9)	28(11.9)	6(10.5)	35(11.9)	9(12.5)	3(6.4)	24(11.5)	15(10.9)	8(12.1)
		$\chi^2$		2.11			7.52			1.00
의복 선택 기준	⑩ (9.7%)	11(9.2)	20(8.5)	9(16.1)	28(9.5)	6(8.5)	6(13.0)	17(8.1)	19(13.8)	4(6.2)
	⑪ (73.8%)	85(70.8)	182(77.1)	37(66.1)	220(74.6)	56(78.9)	28(60.9)	156(74.6)	103(74.6)	45(69.2)
	⑫ (10.9%)	17(14.2)	25(10.6)	3(5.4)	32(10.8)	7(9.9)	6(13.0)	26(12.4)	12(8.7)	7(10.8)
	⑬ (5.6%)	7(5.8)	9(3.8)	7(12.5)	15(5.1)	2(2.8)	6(13.0)	10(4.8)	4(2.9)	9(13.8)
		$\chi^2$		12.60*			7.93			14.98*
의복 구매 시기	⑭ (25.3%)	32(26.7)	54(22.7)	19(33.3)	73(24.7)	18(25.0)	14(29.8)	49(23.2)	39(28.3)	17(25.8)
	⑮ (9.6%)	11(9.2)	26(10.9)	3(5.3)	29(9.8)	8(11.1)	3(6.4)	25(11.8)	9(6.5)	6(9.1)
	⑯ (16.1%)	21(17.5)	35(14.7)	11(19.3)	46(15.5)	15(20.8)	6(12.8)	39(18.5)	19(13.8)	9(13.6)
	⑰ (48.9%)	56(46.7)	123(51.7)	24(42.1)	147(50.0)	31(43.1)	24(51.1)	98(46.4)	71(51.4)	34(51.5)
		$\chi^2$		5.58			3.11			5.31
접포 선택 기준	⑱ (63.7%)	73(60.8)	149(63.7)	40(70.2)	189(64.3)	48(68.6)	25(53.2)	129(61.7)	94(69.1)	39(59.1)
	⑲ (30.4%)	36(30.0)	76(32.5)	13(22.8)	91(31.0)	19(27.1)	15(31.9)	68(32.5)	36(26.5)	21(31.8)
	⑳ (5.8%)	11(9.2)	9(3.8)	4(7.0)	14(4.8)	3(4.3)	7(14.9)	12(5.7)	6(4.4)	6(9.1)
		$\chi^2$		5.95			8.87			3.70
	의복 구매 장소	㉑ (19.4%)	20(16.8)	44(18.6)	16(28.1)	55(18.6)	14(19.7)	11(23.4)	39(18.6)	24(17.4)
㉒ (16.7%)		15(12.6)	44(18.6)	10(17.5)	52(17.6)	13(18.3)	4(8.5)	32(15.2)	28(20.3)	9(13.8)
㉓ (35.6%)		51(42.9)	80(33.8)	16(28.1)	105(35.6)	24(33.8)	18(38.3)	86(41.0)	44(31.9)	17(26.2)
㉔ (27.6%)		33(27.7)	69(29.1)	15(26.3)	83(28.1)	20(28.2)	14(29.8)	53(25.2)	42(30.4)	22(33.8)
		$\chi^2$		7.47			2.83			9.02
의복 구매 빈도	㉕ (60.5%)	82(68.3)	145(60.9)	24(42.1)	186(62.8)	42(58.3)	23(48.9)	131(62.1)	82(59.4)	38(57.6)
	㉖ (24.8%)	20(16.7)	66(27.7)	17(29.8)	71(24.0)	19(26.4)	13(27.7)	55(26.1)	31(22.5)	17(25.8)
	㉗ (14.7%)	18(15.0)	27(11.3)	16(28.1)	39(13.2)	11(15.3)	11(23.4)	25(11.8)	25(18.1)	11(16.7)
		$\chi^2$		17.78**			4.58			3.11
	월평 균의 복비	㉘ (12.5%)	24(20.0)	27(11.3)	1(1.8)	33(11.1)	12(16.7)	7(14.9)	27(12.8)	19(13.8)
㉙ (26.3%)		30(25.0)	72(30.3)	7(12.3)	87(29.4)	19(26.4)	3(6.4)	62(29.4)	30(21.7)	17(25.8)
㉚ (36.6%)		44(36.7)	89(37.4)	19(33.3)	109(36.8)	23(31.9)	20(42.6)	69(32.7)	58(42.0)	25(37.9)
㉛ (24.6%)		22(18.3)	50(21.0)	30(52.6)	67(22.6)	18(25.0)	17(36.2)	53(25.1)	31(22.5)	18(27.3)
		$\chi^2$		38.25***			13.73*			5.15
1회 평균 의복 비	㉜ (21.2%)	38(31.7)	43(18.1)	7(12.3)	60(20.3)	20(27.8)	8(17.0)	40(19.0)	38(27.5)	10(15.2)
	㉝ (37.6%)	47(39.2)	93(39.1)	16(28.1)	112(37.8)	29(40.3)	15(31.9)	78(37.0)	51(37.0)	27(40.9)
	㉞ (30.8%)	30(25.0)	78(32.8)	20(35.1)	94(31.8)	17(23.6)	17(36.2)	71(33.6)	37(26.8)	20(30.3)
	㉟ (10.4%)	5(4.2)	24(10.1)	14(24.6)	30(10.1)	6(8.3)	7(14.9)	22(10.4)	12(8.7)	9(13.6)
		$\chi^2$		28.54***			5.49			6.81
대금 지불 방법	㊱ (56.9%)	74(61.7)	139(58.4)	23(40.4)	173(58.4)	36(50.0)	27(57.4)	128(60.7)	74(53.6)	34(51.5)
	㊲ (25.1%)	21(17.5)	40(16.8)	14(24.6)	57(19.3)	10(13.9)	8(17.0)	41(19.4)	23(16.7)	11(16.7)
	㊳ (18.1%)	25(20.8)	59(24.8)	20(35.1)	66(22.3)	26(36.1)	12(25.5)	42(19.9)	41(29.7)	21(31.8)
		$\chi^2$		8.03			6.10			6.19

주: ①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② 친구 및 주위 사람과 맞추려고 ③ 유행을 따르기 위해 ④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 ⑤ 소유한 의복이 낡아서 ⑥ 판매원의 조언 ⑦ 본인 구매경험 ⑧ 유명한 및 주위사람 의복관찰 ⑨ 잡지·TV 광고 ⑩ 품질 ⑪ 디자인 및 색상 ⑫ 가격 ⑬ 유행성·상표유명도 ⑭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 ⑮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⑯ 할인기간 ⑰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⑱ 상품의 품질 ⑲ 가격 수준 ⑳ 판매원의 서비스 및 점포이미지 ㉑ 백화점 ㉒ 할인매장 ㉓ 일반소매점 ㉔ 인터넷 온라인 매장 ㉕ 월1회 이하 ㉖ 월2회 ㉗ 월3회이상 ㉘ 5만원미만 ㉙ 5~10만원 ㉚ 10~15만원 ㉛ 15만원이상 ㉜ 5만원미만 ㉝ 5~10만원 ㉞ 10~15만원 ㉟ 15만원이상 ㊱ 현금 ㊲ 체크카드 ㊳ 신용카드

\*p<.05 \*\*p<.01 \*\*\*p<.001

〈표 6-2〉 화폐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2

		총 화폐소득				
		20만원미만	20~40	40~60	60~80	80만원이상
		N(열%)	N(열%)	N(열%)	N(열%)	N(열%)
의복 구매 동기	① (18.8%)	4(12.5)	21(13.3)	20(17.7)	20(29.9)	12(30.0)
	② (7.1%)	2(6.3)	13(8.2)	9(8.0)	3(4.5)	2(5.0)
	③ (6.3%)	0(0.0)	8(5.1)	11(9.7)	5(7.5)	2(5.0)
	④ (41.7%)	16(50.0)	69(43.7)	48(42.5)	24(35.8)	14(35.0)
	⑤ (26.1%)	10(31.3)	47(29.7)	25(22.1)	15(22.4)	10(25.0)
$\chi^2$		20.27				
의복 정보 원천	⑥ (3.9%)	0(0.0)	7(4.5)	5(4.4)	3(4.3)	1(2.5)
	⑦ (55.8%)	14(43.8)	87(55.4)	64(56.1)	40(58.0)	25(62.5)
	⑧ (28.9%)	12(37.5)	49(31.2)	31(27.2)	14(20.3)	13(32.5)
	⑨ (11.4%)	6(18.8)	14(8.9)	14(12.3)	12(17.4)	1(2.5)
$\chi^2$		13.47				
의복 선택 기준	⑩ (9.7%)	2(6.3)	17(10.7)	9(8.0)	7(10.1)	5(12.8)
	⑪ (73.8%)	25(78.1)	116(73.0)	87(77.0)	51(73.9)	25(64.1)
	⑫ (10.9%)	5(15.6)	20(12.6)	10(8.8)	5(7.2)	5(12.8)
	⑬ (5.6%)	0(0.0)	6(3.8)	7(6.2)	6(8.7)	4(10.3)
$\chi^2$		10.05				
의복 구매 시기	⑭ (25.3%)	7(21.9)	39(24.4)	24(21.1)	21(30.4)	14(35.0)
	⑮ (9.6%)	5(15.6)	16(10.0)	9(7.9)	6(8.7)	4(10.0)
	⑯ (16.1%)	5(15.6)	25(15.6)	23(20.2)	10(14.5)	4(10.0)
	⑰ (48.9%)	15(46.9)	80(50.0)	58(50.9)	32(46.4)	18(45.0)
$\chi^2$		7.47				
점포 선택 기준	⑱ (63.7%)	17(53.1)	97(61.4)	78(69.6)	45(65.2)	25(62.5)
	⑲ (30.4%)	12(37.5)	53(33.5)	30(26.8)	20(29.0)	10(25.0)
	⑳ (5.8%)	3(9.4)	8(5.1)	4(3.6)	4(5.8)	5(12.5)
$\chi^2$		8.18				
의복 구매 장소	㉑ (19.4%)	3(9.4)	30(18.8)	24(21.2)	13(19.1)	10(25.0)
	㉒ (16.7%)	2(6.3)	30(18.8)	22(19.5)	11(16.2)	4(10.0)
	㉓ (35.6%)	17(53.1)	58(36.3)	37(32.7)	22(32.4)	13(32.5)
	㉔ (27.6%)	10(31.3)	42(26.3)	30(26.5)	22(32.4)	13(32.5)
$\chi^2$		11.09				
의복 구매 빈도	㉕ (60.5%)	23(71.9)	109(68.1)	65(57.0)	32(46.4)	22(55.0)
	㉖ (24.8%)	5(15.6)	38(23.8)	28(24.6)	20(29.0)	12(30.0)
	㉗ (14.7%)	4(12.5)	13(8.1)	21(18.4)	17(24.6)	6(15.0)
$\chi^2$		17.53*				
월평균 의복비	㉘ (12.5%)	5(15.6)	24(15.0)	16(14.0)	2(2.9)	5(12.5)
	㉙ (26.3%)	10(31.3)	53(33.1)	23(20.2)	19(27.5)	4(10.0)
	㉚ (36.6%)	13(40.6)	56(35.0)	38(33.3)	27(39.1)	18(45.0)
	㉛ (24.6%)	4(12.5)	27(16.9)	37(32.5)	21(30.4)	13(32.5)
$\chi^2$		27.29**				
1회 평균 의복비	㉜ (21.2%)	10(31.3)	33(20.6)	25(21.9)	16(23.2)	4(10.0)
	㉝ (37.6%)	11(34.4)	64(40.0)	40(35.1)	29(42.0)	12(30.0)
	㉞ (30.8%)	11(34.4)	50(31.3)	33(28.9)	17(24.6)	17(42.5)
	㉟ (10.4%)	0(0.0)	13(8.1)	16(14.0)	7(10.1)	7(17.5)
$\chi^2$		16.01				
대금 지불 방법	㊱ (56.9%)	20(62.5)	103(64.4)	61(53.5)	33(47.8)	19(47.5)
	㊲ (25.1%)	9(28.1)	23(14.4)	21(18.4)	16(23.2)	6(15.0)
	㊳ (18.1%)	3(9.4)	34(21.3)	32(28.1)	20(29.0)	15(37.5)
$\chi^2$		15.19*				

주: ①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 ② 친구 및 주위 사람과 맞추려고 ③ 유행을 따르기 위해 ④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 ⑤ 소유한 의복이 없어서 ⑥ 판매원의 조언 ⑦ 본인 구매경험 ⑧ 유명한 및 주위사람 의복관찰 ⑨ 잡지·TV 광고 ⑩ 품질 ⑪ 디자인 및 색상 ⑫ 가격 ⑬ 유행성·상표유명도 ⑭ 마음에 드는 옷을 볼 때 ⑮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⑯ 할인기간 ⑰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⑱ 상품의 품질 ⑲ 가격 수준 ⑳ 판매원의 서비스 ㉑ 점포이미지 ㉒ 백화점 ㉓ 할인매장 ㉔ 일반소매점 ㉕ 인터넷 온라인 매장 ㉖ 월1회 이하 ㉗ 월2회 ㉘ 월3회이상 ㉙ 5만원미만 ㉚ 5~10만원 ㉛ 10~15만원 ㉜ 15만원이상 ㉝ 5만원미만 ㉞ 5~10만원 ㉟ 10~15만원 ㊱ 15만원이상 ㊲ 현금 ㊳ 체크카드 ㊴ 신용카드

\*p<.05 \*\*p<.01 \*\*\*p<.001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용돈이 '40만원 미만'인 학생은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 '소유한 의복이 낡아서' 의복 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반면 용돈이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 '친구 및 주위 사람과 맞추려고', '유행을 따르기 위해' 의복구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돈이 많을수록 구매충동이나 사교상의 필요 때문에 의복을 구매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수정, 1994)와 비슷한 결과이다.

용돈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의복을 선택할 때 '가격'을,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디자인 및 색상'을,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품질'과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용돈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월 1회 이하'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용돈이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월 3회 이상'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용돈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용돈이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용돈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1회 평균 의복비로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용돈이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1회 평균 의복비로 '1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용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대학생은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나 의복이 낡아서 의복구매를 하며, 가격을 선택기준으로 삼으며, 월평균 1회 이하 5만원 미만의 의복구입비를 지출하며, 한

번 지출시 역시 5만원 미만을 지출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용돈을 더 많이 받는 대학생은 기분전환이나 사교적인 동기, 유행을 따르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며, 유명상표와 유행, 품질을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월 3회 이상 의복구매를 하며, 1회 지출할 때 15만원 이상을, 월 15만원 이상의 의복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돈이 많을수록 사교적인 동기로 의복구매를 하며, 의복구매 횟수가 많으며, 의복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류은정·김수경, 2000; 이수정,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 2) 근로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근로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은 월 평균 의복비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근로소득이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자유재량소득이 높기 때문에 의복비 지출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 3) 저축인출액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저축인출액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은 의복선택기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저축인출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품질'을 보다 중시하고, 저축인출액이 '3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유행성 및 상표유명도'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총 화폐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총 화폐소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검증한 결과 의복구매빈도, 월 평균 의복비, 대금지불



방법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총 화폐소득이 '20만원 미만'과 '20~4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의복을 '월 1회 이하' 구매하는 빈도가 높고, 화폐소득이 '40~6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월 3회 이상'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다. 화폐소득이 '60~8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의복을 '월 2회'와 '월 3회 이상' 구매하는 빈도가 높고, 총 화폐소득이 '8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월 2회'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다. 즉 총 화폐소득이 낮은 대학생보다 총 화폐소득이 높은 대학생은 의복을 보다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화폐소득이 '4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 총 화폐소득이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월 평균 의복비로 '1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총 화폐소득이 많은 대학생이 월 평균 의복비 지출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총 화폐소득이 '4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현금 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총 화폐소득이 '40만원 이상'인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의복구매 횟수가 많으며, 의복비 지출도 많은 선행연구(류은정·김수경, 2000; 이수정, 199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월평균 총 화폐소득은 45만 5천원이었다. 대학생의 92%는 월 25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고 있었으며, 40%는 근로활동을 통해 월평균 34만원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었다. 조사대상 학생의 약 64%는 월 평균 약 18만원 가량을 저축액에서 인출하여 화폐소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19%는 소득 중 일

정부분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주는 가정경제기여액이 있으며 액수는 평균 17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으나 근로소득과 저축인출액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아 총 화폐소득도 더 많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돈과 근로소득, 저축인출액, 총 화폐소득이 증가하며,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보다 근로소득과 총 화폐소득이 더 많았다. 가계소득과 가정생활수준이 높은 학생의 용돈과 총 화폐소득이 많았다. 신용카드가 있는 대학생이 용돈과 근로소득, 총 화폐소득이 더 많았다.

셋째, 대학생의 주요한 의복구매동기는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서였다. 소유한 의복과의 조화나 기존 의복이 낡아서와 같은 경제적 동기로 의복을 구매하는 경향은 남학생, 가계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은 대학생,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 화폐소득에서 용돈액이 적은 대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 가계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신용카드가 있거나 용돈액이 많은 대학생은 감정적이고 동조적, 유행추구적 동기 하에 의복을 구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넷째, 조사대상 대학생은 의복구매와 관련된 정보탐색시 본인의 과거 구매경험을 통한 정보를 주로 얻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나 가계소득이 중간 이상인 대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학생이나 가계소득이 낮은 대학생은 외적정보원천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은 의복을 선택할 때 디자인 또는 색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 가계소득이 낮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 화폐소득에서 용돈액이 적거나 저축인출액이 적은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가격

을 더 중요시 여겼다.

여섯째, 절반가량의 대학생은 의복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구매하였으며, 점포를 선택할 때 상품의 품질 및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대학생은 의복을 주로 일반소매점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일반소매점과 할인매장을, 생활수준이 높거나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백화점을 선호했다.

일곱째, 절반 이상의 대학생이 월 1회 이하 의복구매를 한다고 했고, 구매빈도는 여학생, 가계소득과 생활수준이 높거나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 화폐소득에서 용돈액이 많거나 총 화폐소득이 많은 학생이 더 높았다. 대학생의 월 평균 의복비는 주로 10만원 내외였으나 가계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 화폐소득에서 용돈액이 많거나 근로소득이 많아 총 화폐소득이 많은 대학생은 더 많은 지출을 하며,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더 적은 지출을 하였다. 대학생의 1회 평균 의복비 역시 10만원 내외가 가장 많았으며, 가계소득이 높거나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이, 화폐소득에서 용돈액이 많은 대학생이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대학생은 의복구매시 주로 현금 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계열 학생, 가계소득이 적은 대학생, 신용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대학생, 화폐소득에서 총 화폐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대학생에게서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의 총 화폐소득 중 의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넘어서 대학생의 소득대비 의복비 지출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상적 의복은 부모가 사주거나 의복비를 따로

받아쓰는 것까지 감안하면, 의복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시절의 지출습관이 사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므로 무절제한 소비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지출관리와 저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지도와 학교나 사회에서의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용돈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적었으나 의복비 지출에서는 오히려 구매빈도가 잦고 지출액수도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의복을 구매하는 동기도 남학생에 비해 감정적, 동조적, 유행추구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비필수재인 의복이라는 소비 품목에서 여학생이 감정 추구적으로 과소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의복뿐만 아니라 명품이나 사치재 구매의 주 구매대상이 여성이며, 이들의 과소비 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할 때 여성, 특히 20대 젊은 여성들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용돈과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화폐소득이 많은 대학생이 월평균 의복비 지출이 많고 구매빈도가 높은 것은 소득이 많으면 소비욕구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학생의 소비자 교육 가운데 소득이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의 소비 습관이나 태도로 인해 동료 집단이나 다른 소득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소비의식과 소비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 개인의 화폐소득 외 가계소득이나 생활수준도 개인소득 변인과 마찬가지로 의복구매행동에 비슷한 관련성을 보여 가계소득이 높거나 생활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학생의 의복구매 빈도와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구매동기도 경제적 동기보다 감정적 동기나 유행 동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고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유형이 백화점이므로 이들 집단이 백화점을 통한 의복판매의 표적시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신용카드를 소유한 대학생이 의복구매 빈도와 지출액수가 더 많았고, 경제적 동기보다 감정적 동기로 의복을 구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신용카드를 소유한 학생이 가계소득이나 개인화폐소득이 많아 생활수준이 높아서 나타난 행동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득이나 생활수준과 무관한 행동이라면 그러한 행동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는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과 당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의복구매 지출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무교육이 대학생으로 하여금 절제와 효율적 관리지향 등과 같은 태도를 형성시켜 바람직한 화폐자원사용행동을 유도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전국대학생의 화폐소득과 의복구매행동을 대표하지 못하는 일반화의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복구매행동을 측정하는데 설문지를 이용하면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행동을 왜곡하여 응답할 우려가 있다. 조사방법이 아닌 다양한 자료수집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사실적으로 측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종속변인인 의복구매행동을 범주형 척도로 측정하여 통계분석 방법의 제한이 있어 다른 변인을 통제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후속연구는 연속형 변인으로 측정하여 변인들

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은 성인 집단에 비해 소득에서 편차가 적은 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득을 갖는 집단 표집이 요구되며, 의복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변인 외 변인을 탐색하여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구매의사결정 단계별 의복구매행동을 범주형 자료로 수집하다보니 빈도수가 적은 셀이 많아 화폐소득과의 차이검증에서 카이제곱값의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향후 연구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거나 각 범주의 응답 비율을 고려한 척도 설계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나영, 이정림, 현명희(1997). 대학생 소비자의 가치관에 따른 구매유형과 소비지출 행동. 가정관리연구 16, 137-160.
- 2) 김민희(1998).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영신(2003). 소비자의사결정 유형 및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학생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6(3), 51-78.
- 4) 김혜경, 김정훈(2007). 대학생의 성별과 전공에 따른 의복관련 소비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11-121.
- 5) 류은정, 김수경(2005). 의복의 과소비성향 및 관련변수와 의복구매행동과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477-485.
- 6) Rice, A.S. & Tucker, S.M. Family life management, 문숙재, 김정옥 번역서(1994). 가족자원관리. 서울 : 동명사.
- 7) 박정민(1997). 남녀대학생의 의복선택습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정숙(2002).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2004). 대학생 용돈관리와 신용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 10) 서정희, 염수경(1998).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유형과 소비지출. 울산대학교 자연과학 논문집 8, 139-155.
- 11) 신정희(2001). N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심영(2004). 대학생 소비자의 소비지출 태도, 관리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3), 17-38.
- 13) 우순이(1996). 소비자 학습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금전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화교육논총 7, 92-102.
- 14) 유태순, 김성희(1999). 대학생의 의복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성별·학년을 중심으로.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응용과학 연구논문집 7, 105-113.
- 15) 이금실(1992). 사회계층변인에 따른 여성의 의복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기춘(1985).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7)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 서울 : 교문사.
- 18) 이수정(1994). 의생활양식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이승신, 김기욱, 김경자, 심영, 정순희(2005). 가계경제분석. 서울 : 신정.
- 20) 이은영(1999). 가계 소득 변화와 청소년의 소비 지출 행태 연구: 대전·충남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1) 임정빈, 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 22) 정은주(1996). 수도권 지역 대학생 소비자들의 화폐수입과 지출행동에 관한 연구 - 부모와의 동거부에 따른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3) 채정숙(1992). 제품관여수준에 따른 소비자 구매유형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대학생 소비자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7, 5-19.
- 24) 최순중(2005).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수입, 지출, 부채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229-255.
- 25) 한명숙, 정미혜(2000). 대학생의 가치관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4), 602-610.
- 26) 허경옥(2002). 연령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소비자의식 및 정보탐색 활용과 소비행동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39-64.
- 27) 홍은실, 황덕순(2004). 대학생 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와 돈에 대한 선-악 태도, 재정 스트레스. 생활과학연구 14, 73-84.
- 28) Bailey, A. W.(1992). Teenagers' employment, earnings, and expend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84(2), 20-24.
- 29) Bene, P. J. & Southers, C. L.(1993). A resource issue; Employment and the enhancement of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85(2), 23-29.
- 30) Doss, V. S., Marlowe, J., Godwin, D. D. (1995). Middle-school children's sources and uses of money. Journal of Consume Affairs 29(1), 219-241.
- 31) Engel, J. F., Blackwell, R. D., Kollat, D.

- T.(1992). Consumer behavior, 3th ed. Hinsdale. IL : Dryden Press, 301.
- 32) Gross, I.H., Crandall, E.W., Knoll, M.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 33) Hafstrom, J. L., Chae, J. S., Chung, Y. S. (1992).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comparison between United States and Korean young consumer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1), 146-458.
- 34)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405.
- 35) Loudon, D. L. & Della Bitta, A. J.(1988). Consumer behavior: Concepts and applications, 3th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8.
- 36) Moschis, G. P., & Churchill JR, G. A. (1979). An analysis of the adolescent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43, 40-48.
- 37) Newsweek. 1986.6.9.
- 38) O'Neill, B.(1992). Youth, money, and financial plann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84(3), 12-16.
- 39) Stern, D. & Nakata, Yoshi-fumi.(1991). Paid employment among U.S. college students trends, effects, and possible caus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2(1), 25-43.
- 40) Ward, S. & Robertson, T. S.(1973). Consumer behavior: Theoretical Sources. NJ : Prentice-Hall, 6.
- 투 고 일 : 2009년 10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0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26일